

제주4·3 희생자·유족 인정 4년 만에 ‘추가 신고’ 재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법제처 심사 완료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도, 내년 2월부터 접수
8차 신고까지 희생자 1만5218명·유족 12만8022명

2023년 이후 4년 만에 정부로부터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 받기 위한 추가 신고 절차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4·3특별법 시행령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 기간을 한정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까지 8차례 신고·접수 기간을 운영해 1만5218명을 4·3희생자로, 12만8022명을 유족으로 인정했다.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 신고 접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후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 추가 신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 고했고, 지난 7일에는 법제처 심사가 끝났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제9차 추가 신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신고했다.

신고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제주

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국내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제9차 추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늘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와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이 폭염과 폭우 등 극한날씨에도 2년 연속 6000여명의 탐방객이 찾았다.

강희만기자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5일간 일정 마무리

탐방객 6000여명… 용암길 인기몰이

폭염·폭우 등 극한 날씨에도 발길 이어져
내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주년 행사 기대

‘태고의 신비, 거문오름의 시간’을 주제로 5일간 이어진 ‘2026 세계자연유산제주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이 2년 연속 탐방객 6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특히 내년 행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개막해 1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 일대에서 펼쳐졌다.

18일 주최·주관 측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의 극한 날씨 속에서도 행사기간에만 6035명(도민 3560, 도외 2475)이 거문오름을 찾았다. 평년 기준 4000명대를 넘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00명을 상회하

는 기록이다. 폐막일인 17일 하루 동안에만 1498명(도민 1003, 도외 495)이 찾아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탐방객들은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열리는 용암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용암길 탐방객은 지난 16일에는 약기상으로 통제가 됐음에도 4일간 3166명이 찾아 곳 자왈의 숨은 비경을 감상했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약 6km 코스로 약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태극길은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로, 정상코스(2.1km·1시간)와 분화구코스(5.0km·2시간30분), 능선코스(6.7km·3시간30분)로 나뉜다. 해설사와 동행해 연중 탐방이 가능한 코스다.

행사 기간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자연유산 해설사와 어린이해설사들도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행사기간에는 ‘오감만족’ 공연과 주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먹거리장터, 선흘2리 주민들이 만든 마을가게, 환경을 생각하는 아나바다, 할망들의 전통 지름떡과 쉼다리 시음회 등이 운영되며 탐방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거문오름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강만생 위원장은 앞서 개막식 회차에서 “내년(2027년)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등재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고 강조, 내년 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소상공인들 고금리 대출 부담 댄다

도, 1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협약
새마을금고·제주신용보증재단 각 5억원 특별출연

고금리 대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8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출연금 5억원과 제주도 민생추진 출연금 10억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등 총 20억원의 보증재원이 마련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소상공 1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특별보증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개인사업자 가운데 기존 7% 이상 고금리 기업대출(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업체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단기간에 집중되는 상환 부담을 줄였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제주시가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를 ‘이호테우해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호테우해변 상점가(점포수 62개소)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식음·휴식 수요가

함께 형성된 곳으로, 해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이호테우해변 상가변영회에 대한 상인회 등록도 마쳤다. 이를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마케팅과 상권 홍보,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도적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이호테우해변이 추가되면서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지정한 10곳과 올해 신규 9곳 등을 포함해 19개소로 늘었다. 백금탁기자

정치권 로비 의혹 아파트 압수수색… 4면 / 제주,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간다(2)… 5면

SAMSUNG



히트펌프, 당연히 삼성이 답입니다 삼성 EHS 히트펌프 보일러

제주도민을 위해 준비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역대급 70% 보조금

정부지원사업 선정
70% 보조금 특별 지원



난방비 절감 극대화

보일러 대비
약 4배 이상의 난방 효율
(SCOP 3.78)



2026년 3관왕 재거

2026 대한민국 혁신대상
2026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2026 올해의 녹색상품상

☎ 상담 및 구입 문의처 064-712-6777(제주도 전용) / 1588-3536(전국)

*온라인 접수는 좌하단 QR코드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로 작성된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정부 지원 사업] *제주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내 태양광 발전 시설(최소 3kW 이상)을 설치하여 사용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단독 주택의 소유주(세대주)에 한하여 정부 지원금 1억원(국비 60%, 지방 40%)의 70% 지원 (히트펌프, 부속 설비, 설치비 포함)(단, 가계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난방 효율) *2차 상환지 기금(연방적인 단종 진행 중)으로 보조, 가설) 난방 시설, 1월 이후 최초 기금 지급 시점, 10월 1일 이후 3개월 내 보조금 지급) (SCOP 3.78)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난방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 계절 동안 공급한 난방 에너지에 소비 전력량으로 나눈 값 단, 히트펌프 보일러 15kW, SCOP 3.78을 기준으로 함 (50°C 기준,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